

# 순천만국가정원, 추석 연휴 속 관람객 300만 돌파

하루 평균 5만명 방문·'정원 한가위'  
300만 번째 서울 3대 가족 주인공  
실시간 도슨트·AI 통역 등 지원 호평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누적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3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서울 은평구에서 방문한 3대 가족이 선정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누적 관람객 300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55분 기준 300만 번째 관람객이 탄생했으며, 서울 은평구에서 방문한 3대 가족이 주인공이 됐다.

300만 번째 관람객인 서울 은평구 가족 일행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정원은 처음"이라며 "끝 없이 펼쳐진 풍경 속에서 자연이 지를 감싸안는 느낌이였다.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에는 하루 평균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웃음과 여유를 즐기며 활기찬 명절의 정취를 더했다.

노리개와 복주머니를 나눠주는 한복데이, '추석 인생네컷' 등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30

만평 (99만1천735㎡)에 이르는 국가정원 곳곳은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체험과 포토존으로 하루 종일 왁자지껄했고, 행복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이어졌다. '대형 보름달 포토존'에서는 소원을

비는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대형 율늘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마당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전통 기악과 현악 공연이 더해져 웃음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정원은 명절의 흥과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따뜻한 '정원 한가위'의 풍경을 선사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방문객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순천시는 외국인 대상 관람 편의를 위해 영문 리플릿뿐만 아니라 실시간 도슨트와 AI 통역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들이 정원을 불편함 없이 즐기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과 함께 정원에서 여유를 즐기며, 정원에서 느낀 따뜻한 감동이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300만 번째 관람객 돌파라는 뜻깊은 성과를 계기로 순천만국가정원이 세계 속 정원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 고흥군, 명실상부 전국 1위 장수마을 '우뚛'

100세 이상 인구 비율 전국 최고

고흥군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장수마을'로 인정받았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통계청 최신 발표에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장수 고장임을 보여줬다.

공영민 군수는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먹거리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천909명의 어르신에게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함께 일하며 교류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기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 목욕탕·이미용 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 6만원 상당의 '청춘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노인전담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66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검

진을 제공하고,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어르신 집구류 공공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고흥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흥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르신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고향에서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 한도 대폭 상향

올해 말까지 총 15% 할인

장성군은 12일 "올해 말까지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결

제 후 5% '캐시백' 적립이 적용돼 총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휴대전화 앱 '작(c hak)'에서 '캐시백'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다음 번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상품권 구매 한

도도 월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단, 종이형 상품권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10% 할인, 월 7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일부 면 소재지 하나로 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지역 상권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최근 광양시를 방문한 페루 지방정부 시장 대표단과 정인화(아랫줄 왼쪽 두번째) 광양시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페루 3개 도시, 미래 산업 협력 논의

남미 지역 교류 확대 등 기대

광양시는 "최근 페루 지방정부 시장 대표단이 광양을 방문해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2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페루 혁신경제포럼' 참석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산타로사·찰와와초·파우카르 델 사라 사라 3개 도시 시장과 포럼 관계자 등 11명이 함께

했다.

페루 대표단은 이번 일정에서 광양시의 스마트 안전도시 정책, 스마트팜 모델, 항만 물류 경쟁력을 살펴보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첫날 환영 만찬에서는 정인화 시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튿날에는 ▲A I 기반 실시간 안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CC TV 통합관제센터 ▲농업인교육관 및 스마트팜 ▲광양항 등을 차례로 시찰하며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광양의 역량을 확인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이번 교류를 계기로 광양시는 칠레 발파라이소, 파나마 파나마시티 등 기존 교류 도시를 넘어 남미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에서 한 단계 도약해 스마트도시와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상생 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광양시가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기자



김성 장흥군수가 최근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방문해 벼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여름철 고온다습 환경 여파 확산  
"농업재해 인정·수배 보장 필요"

장흥군이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 대책 마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김성 군수는 피해 현장을 방문해 긴급 방제를 지시하고,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깨씨무늬병은 양분 보유력이 낮은 토양에서 출수기에서 황숙기까지 양분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곰팡이성 병해다.

군은 올해 6월부터 지속된 이상 고온현상과 집중호우의 여파로 병해 면적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깨씨무늬병은 단순한 병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

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흥군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벼 영양관리 지도와 긴급 방제에 나섰다.

특히 퇴비, 규산질비료, 볏짚 넣기 등을 통한 지역 증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가 피해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군은 우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농업재난재해' 인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벼 농작물 재배보험 병해충 특약 내용을 알리고 미질 저하에 따른 수배 가능성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최근 쌀 생산비 급등과 병해충 증가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농업재난재해 인정과 미질이 떨어진 벼에 대한 수배 보장을 통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기자

## 구례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15일부터 노년층 접종 시작  
50-64세 군민도 무료 지원

구례군은 12일 "내년 4월30일까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국가 무료지원 대상자 ▲구례군 자체 무료지원 대상자 ▲유료 접종 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군별로 접종 시작 시기가 다르다.

어린이(생후 6개월-13세)와 임신부는 접종을 시작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달 15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연령별로 ▲75세 이상 10월15일 ▲70-74세 10월20일 ▲65-69세 10월22일로 일정이 나뉜다. /구례=임종길기자

접종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50-64세 군민과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은 이달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례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4-49세 군민은 1만원의 비용으로 같은 기간 구례군 보건의료원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영훈 보건사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061-780-2039·2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임종길기자